

제11편 - 소사신앙촌 시대 <제2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42회)

제11편
소사신앙촌시대 <제2부>
- 소사라고 하는 지역
1) 무너진 하늘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예비해 놓은 곳
2) 천봉지락소사립(天崩地坼素砂立)의 본고장
3) '환돌'이요 '계룡백석'이다
4) 무릉도원종도처(武陵桃源種桃處)
5) 시종간야소사지(始終艮野素砂地)

나) 계룡백석 환돌은 세 가지 뜻이 함축(含蓄)되어 있다

첫째, 성산지(聖山地)란 뜻이 있다. 환돌 위에 쓴 새 이름(묵2:17)은 '새 소사' 라고 설명을 했다. 새 소사는 예덴동산을 회복시키는 본고장이다. 그래서 선각자들은 후손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잘못될까 염려되어 많은 말을 남겼다.

천계룡(天鷄龍)은 불각(不覺)하고 지계룡(地鷄龍)만 찾단말가 - 도부신인

이 예언은 공주의 계룡산이 정도령의 도읍지가 아니라는 내용이다. 지계룡은 공주의 계룡산이고 천계룡은 계룡백석인 '새 소사' 라는 것을 알려주려 한 것이다.

다음의 예언을 보자! 계룡백석은 비공주(非公州)요 평사지간(平沙之間)이 진공주(眞公州)라. - 계룡가에서 "계룡백석인 환돌은 공주에 있는 것이 아니요 부평과 소사간에 있는 곳이 진짜 공주다" 그러니 분명히 소사가 천계룡이고 환돌이라는 예언이다.

또 鷄龍白石聖山地(계룡백석성산지)나 非山非野白沙間(비산비아백사간)이 弓弓十勝真人處(궁궁십승진인처)라

"계룡백석이란 성인이 완성의 역사를 이룩할 성지인데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백사간 즉 소사가 승리한 진인이 완성의 역사를 하실 곳이다." 이 말에서는 분명히 백석 즉 소사가

계룡백석 환돌이요 성지라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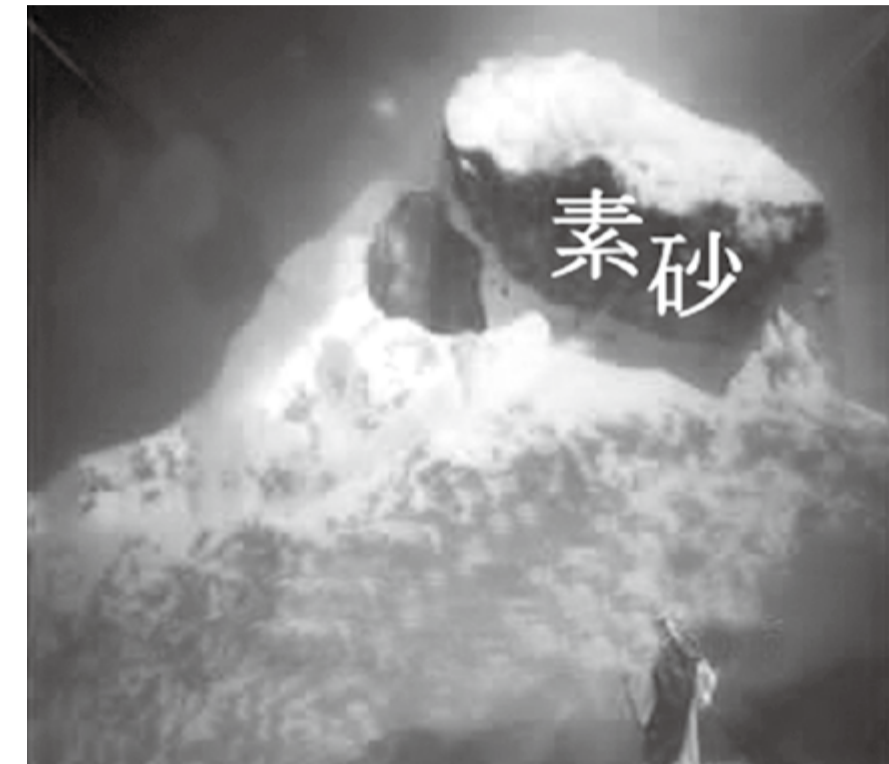
이곳에서 첫번째 영모념으로 나타나신 박태선 하나님이 환돌인 소사에서 소사신앙촌을 건설하시어 하나님의 6000년 동안의 숙원사업이신 회복의 천지공사를 시작하셨다. 이어서 박태선 엄마를 통하여 태어나신 조희성 구세주가 바톤을 이어 받아 이곳 환돌인 소사에서 승리제단을 세우고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을 확인이라도 해주려는 듯이 격암유록 말운론에 "始終艮野素砂地(시종간야소사지)"라고 예언되어 있다. 시작도 소사 끝맺음도 소사에서 하시게 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여러 예언을 찾아보면 이곳 소사 환돌은 틀림이 없는 성지이다.

둘째, 무기(武器)란 뜻이다. 환돌이 성지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 말이나 환돌이 무기라고 함은 잘 납득이 안 갈 것이다. 어떻게 계룡백석이 무기가 되는 것일까? 성지인 소사가 환돌이 되고 환돌이 무기가 되는 것은 완성자 구세진인은 살마광선 감로(殺魔光線 甘露)로 이루어진 분이기 때문이다. 감로는 살마광선이면서 인류를 하나님으로 재창조시켜 영생체로 만들어 주는 은총(恩寵)의 무기이다. 그러니 살마광선인 감로 자체가 구세진인 정도령의 본체시고 또 정도령 자체가 무기가 되며 환돌이 되는 것이다.

다음의 비결서의 내용을 보자! 鷄龍白石武器故(계룡백석무기고)로 田末弓者田鎌(전말궁자전겸)이라.....계룡론에서

이 말에서는 분명히 백석 즉 소사가



"계룡백석은 무기인데 전(田)자를 상징하는 말세의 십승인이요 전자의 주인공은 낮을 상징하는 분이시다."

또 鷄龍白石武器故(계룡백석무기고)로 山魔海鬼隱藏(산마해귀은장)일세.....송가전에서

"계룡백석은 이긴자의 무기로서 산의 마귀와 바다의 귀신에게 감추고 숨졌던 것이다."

앞의 비결은 백석은 무기인데 정도령님이 낮을 들고 인생을 추수하는 분임을 밝히고 있다. 또 두번째는 백석은 무기로서 산의 마귀와 바다의 귀신에게 감추고 숨졌던 비밀의 무기라고 적고 있다. 마귀들에게 숨긴 비밀의 무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살마광선이 되는 이슬같은 감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성의 진인은 이 살마광선인 감로써 마귀는 박멸시키고 인류에게는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어 영생

이 없다(단 2:34-35)" 또 44절에는 "이후에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리라"라고 하여 뜬말이 낱아와 세상나라를 가루로 만들어 부수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기록이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뜬말이 마귀세상을 박살을 내 버렸다고 했는데 이 뜬말이 바로 구세주 자체이며 구세주의 뜬말이 무기인 것이다. 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여지고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가루가 되어 흩어지리라(마 21:26)" 무서운 구세주의 뜬말이 무기이다. 이런 이치로 계룡백석 환돌은 구세주의 완성의 역사를 하시는 데 없어서는 아니되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셋째, 왕중왕이라는 뜻이다. 환돌이 성지요 무기라는 것은 위의 설명으로 이해가 될 것이나 환돌이 구세진인 정도령님이 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될 것이다. 다음 설명을 보자.

鷄龍白石正道舍(계룡백석정도령) 또 鷄龍白石鄭蓮王(계룡백석정운왕).....계룡론에서

여기에 보면 계룡백석 환돌이 정도령이요 왕중왕인 정도령이 된다고 하였다.

鷄龍山下定都地(계룡산하정도지)白石之日中君(백석지화일중군) 能知三神救世主(능지삼신구세주) 牛鳴在人弓乙仙(우명재인궁을선).....말운론에서

"계룡산 아래 도읍을 정하는데 환돌이 화하여 태양같은 입금이 되시도다. 이분은 능히 삼신을 모신 구세주이심을 알라. 소울음소리 나는 곳에 있는 사람이 궁을십승인 신선이니라"

여기의 기록을 보면 백석이 화하여 태양같은 입금이 된다고 했다. 또 환돌은 삼위의 하나님을 모시어 일체가 되신 구세주라고 확정을 지어 말하고 있다. 앞장에서 설명한 백석이 무기라고 설명한 것을 상고하자.

그때 백석은 무기인데 살마광선 감로가 정도령님의 무기인 백석이라고 설명하였다. 정도령님 자체가 마귀를 죽이는 살마광선인 감로요 삼품해인이다. 그러니 정도령님은 무기인 살마광선이요 감로요 삼품해인인 환돌 무기로써 사망의 신 마귀를 박멸시키고 인류를 영생체로 중생시키어 사망의 신 마귀가 차지하고 앉아 있던 왕중왕 자리를 뺏아 되찾아 정도령님이 왕중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다.

환돌 백석은 세 분 하나님을 모시어 일체가 되신 완성자 구세주 자체이다. 그러므로 白石 白馬 白寶座 白金星 白舍花 白十字란 다 같은 삼신일체를 이룬 마지막 완성자 구세주 금운이신데 이 금운의 주인공은 백석의 상징인 구세주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분은 온 우주의 왕중왕이 되는 것이다.

참고 # 돌이 구세주임을 표현한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다.#

A) 뵤전2:4-5 "주는 살으신 돌이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보배로운 돌이니 너희가 그에게 나아간 즉 너희도 산돌이 되어 세움을 입어 신령한 집이 되고"

여기를 보면 구세주를 살아있는 돌로 표현하였다. 뿐만아니라 우리도 구세주를 따라가면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인 천국을 이룬다고 하였다.*

- 다음호에 계속

격암유록 新 해설 제12회

세계열방에서 금은보화를 싣고 춤추며 노래하며 정도령을 찾아 한국으로 몰려오느니라

來貝豫言六十才 내패에언록십재

列邦之中高立鮮 열방지중고립선 列邦蝴蝶歌舞來 열방호접가무래 海中豐富貨歸來 해중풍부화귀래 六大九月海運開 육대구월해운개 送舊迎新好時節 송구영신호시절 如雲如雨鶴飛來 여운여우학비래 諸邦島嶼屈伏鮮 제방도여굴복선 無論大小邦船艦 무론대소방선함 聖山聖地望遠來 성산성지망원래 引率歸來列邦民 인솔귀래열방민

세계열방 가운데 우뚝 선 조선(한국)이여! 꽃을 보고 나비가 날아들 듯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몰려오네. 바다의 운이 육대구월에 크게 열리며 바다를 통하여 값비싼 보석과 재화를 싣고 들어오며 정도령의 은혜 속에 축복받은 물품을 싣고 돌아간다. 마귀가 지배하던 묵은 시대를 보내고 구세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시대를 맞이하니 참으로 좋은 시절이로다. 구름같이 비같이 세계 도처에서 비행기가 날아오고 여러 세계열방과 섬나라들이 조선(한국)에 머리 숙여 굴

복하느니라. 대소국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의 선박들이 성산성지를 바라보고 열방의 국민을 인솔하여 멀리서 오느니라.

鷄龍都城尋壁民 계룡도성성벽민 金石尋塔真珠門 금석심장진주문 無罪人生永居宮 무죄인생영거궁 有罪人生不入城 유죄인생불입성 背天之國永破滅 배천지국영파멸 富貴貧賤反覆日 부귀빈천반복일 弓乙聖山無祈不通 궁을성산무기불통 金銀寶貨用剩餘 금은보화용잉여 和平用官正義立 화평용관정의립 爲鑑督更無強 위감감독경무강 日光晝 일광주 更無月光之極 경무월광지극 七日色寶石照 칠일색보석조 列邦望色福地來 열방망색복지래 更無月虧不夜光明 경무월휴불야광명 當代千年人人覺 당대천년인인각

계룡의 도성을 방문한 사람들은 금강석과 보옥으로 된 벽과 진주로 된 담장을 보고 놀라게 되리라. 죄 없는 사람이 영원히 살 궁전이요 죄 많은 사람

은 들어갈 수 없는 성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나라는 영원한 파멸이 있을 뿐이다. 부귀와 빈천이 뒤집어지는 날이 온다. 궁을성산에서는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금은보화는 쓰고도 남는다.

관리는 오직 평화를 위해서 일하니 정의가 서고 감동함에 다시는 강포(강요, 강제)함이 없으리라.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낮만 있고 다시는 달빛이 없는 세상이고 일곱 가지 무지개 색의 빛이 보석처럼 빛나니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그 찬란한 빛을 바라보고 축복받은 땅으로 찾아오리라. 다시는 달이 지지러지는 일이 없고 밤이 없는 광명한 세상이 되리라. 이 시대가 천원왕국임을 사람마다 깨달아야 하리로다.

赫謀人生世謀人死 시모인생세모인사 一當千當萬 일당천천당만 人弱當強 一喜一悲 인약당강 일희일비 興盡悲來 苦盡甘來 흥진비래 고진감래 人人解冤好時節 인인해원호시절 永春無窮福樂 영춘무궁복락 出生入生林活人 출사입생박활인 不知歲月何甲子 부지세월하갑자

年月日時甲子運 연월일시갑자운

갑(갑람)나무이신 정도령(6도 81궁)을 따르는 사람은 영생의 진리를 깨달아 영생활 것이요 세상(마귀 세상)일을 피하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어 영원히 죽어 지옥에 가리라. 정도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일당 천이요 일당 만이 되리라. 사람은 약하나 영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응당 강하게 되느니라. 한번 기쁜 일이 있으면 한 번 슬픈 일이 있는 것이 세상 이치이듯이 흥이 다하면 슬픔이 오는 것이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과 같이 사람마다 해원하는 좋은 시절이 오리니 영원한 봄날에 영원 무궁토록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리라. 죽음에서 나와 영생으로 들어가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갑람나무 정도령은 사람을 살리시는 천지공사를 하시니 그분을 따르고 영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기쁨과 쾌락 속에서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되리라. 날마다 좋은 날(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이요 날마다 새로운 날이요 새 출발하는 날이리라.

陰陽合日三十定 음양합일삼십정 不耕田而食之 불경전이식지 不拜祭而祭之 불배제이제지 不麻皮而衣之 불마피이의지 不埋葬而葬之 불매장이장지 有形無形神化日 유행무형신화일 求人兩白求殺數 두인양백구곡삼총 世人不知 세인부지 可哀可哀心 覺知知知 가에가에심각지 지지지 慎之慎之哉 신지신지제

음양이 합하여 하나되는 날(무극대도를 완성하는 날) 마귀를 이기신 삼위

일체 하나님에 좌정하시니 밭을 갈지 않아도 먹고, 절하지 않아도 제사지내며, 길쌈을 하지 않아도 옷을 입고, 매장하지 않아도 장례를 지내느니라. 유행(물질) 무형(마음) 모두가 신으로 화(化)하는 날이 오리라.

사람은 양백에서 구하고 곡식은 삼품에서 구해야 하는데 세상사람들은 양백과 삼품을 모르는구나. 애처롭구나. 애처롭구나! 마음 속 깊이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하느니라. 언행을 삼가고 또 삼가며 매사에 신중을 기하시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의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